

2017년 12월 17일, 한림읍 귀덕1리 김천혜 씨 덕, 송정희 조사.
김천혜(여, 1938년생, 한림읍 귀덕1리)

- 줄거리: 친척 어른들이 길을 가다 다급해 보이는 아주머니를 만나 그 집 사정을 듣게 된다. 그 아주머니는 집에 아이가 아픈데 급히 심방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.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그 집으로 가서 자신들이 마치 심방인 것처럼 곳을 해 주었다. 그 후에 그 아주머니 아이는 살아났다. 그래서 선의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선심방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다.

[제보자] 경 허난 옛날 속담으로 선의원은 사람을 죽이고 선심방은 사람을 살린덴 허는 말이 제라헌 의사는 잘못헿, 사람을 죽일 수도 잇주만은 아멩이나 골안 보몬 맞는 수가 잇영 사람을 살린다는 게.

그 이견 우리 시아지방 스춘 시아지방허고 오춘 삼춘이 서귀포를 무슨 일이사 잇인지 갓단 삼춘 조케라 갓인디.

우리집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말만 골으민 막 웃어낫주게. 삼춘 조케라 갓인디. 오젠 허난 자, 걸어오젠 허난 그렁고 돈은 엇고 차비는 셔사 혈 건디 어뎡 허민 좋고 허는 중에 어뎡 애기어멍이

“아이고게, 어디 어른덜이팠게?”

저 어디 그 동네랑 골으멍.

“그디 심방 둘레 가젠 허는디 어느 질로 가민 뵈니쥬? 어디로 가민 재기 가집니쥬?”

허난

“무사 경 험우과?”

허난

“아기가 아판 영 영 허연 허엿우덴.”

허난

“그릅서. 우리가 강 안네쿠덴.”

허영, 상고리 심방이렌 헨 삼춘 조카가 간, 훈 사름은 낭푼인가 두드리고 훈 사름은 뵈도 허난, 그 아기가 살아낫젠 살아나난 그 다음엔 서귀포 가단 봐지난 우리 아지방은(웃음)

“아이고양 아지방마씨? 아지방마씨?”

혜연

“무사마썸?”

혜연 베레보난 그

‘아이고, 거짓갈 헛젠 욱허민 어떻 허코?’

저 가심은 탕탕허는디

“아이고게, 집이 왕 술이라도 혼 잔 행 갑서게. 아이고, 아지방네 때문에 우리 아기 오꼴 살렷우다. 살렷우다.”

그 말을 골으멍 삼춘 조게가 웃으멍, 집이 친척들이 막 해주게 제스 때나 팍 차. 경 허난, 켜당덜이 베설이 끊어지게 웃인덴 허난.

경 허난 선의원은 사람 죽이고 선심방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주. 경 헤낫어. 심 방도 아멩이나 해도 뉘긴 뉘는 거.

- 핵심어: 선의원, 선심방(선무당), 서귀포, 거짓말, 굿